

쇼료인(성령원)(가마쿠라 시대 국보)

서원 가람 동쪽에 있는 쇼료인(성령원)은 쇼토쿠 태자(574~622년)의 존상을 안치하기 위해 지은 전당으로, 나라 시대(710~794년)에는 승려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히가시무로(동실)의 일부였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건물 중에서 남쪽의 3분의 1은 1121년에 개보수되어 쇼료인이 되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히가시무로의 당시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치된 쇼토쿠 태자상과 시자상은 모두 112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장보살상과 여의륜관음상은 각각 헤이안 시대(794~1185년) 초기와 말기의 것입니다. 쇼토쿠 태자가 신격화되어 그에 대한 신앙이 가장 융성했던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에는 쇼토쿠 태자의 조각상이나 초상화 등이 다수 만들어졌습니다.